

인문학 서적 열풍 '왜?' "모순 팽배한 현대사회에 대한 반작용"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정의란 무엇인가
공감의 시대
:
도덕, 정치를 말하다
왜 도덕인가?
이제는 도덕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인문학 열풍에 서점가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점 구석 자리를 면치 못했던 인문학 서적들이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관련 서적들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펄브)가 최근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펄브)에 이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비판한 '그들이...'는 지난달 29일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현재까지 10만부 이상 팔렸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출판사측도 놀라는 분위기다.

부키 관계자는 "소설도 아닌 인문·사회 분야 책이 이렇게 빨리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면서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집계 담당자들도 고개를 가우뚱할 정도"라고 밝혔다.

인문학서적 열풍은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

가'의 인기에서 이미 감지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의'의 문제를 직접 파고든 '정의란...'은 지난 5월 발간돼 한 달 만에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뒤 12주 동안(누적) 종합 1위를 지키며 600만부 가량 팔렸다.

'정의란...'을 읽으며 정치·사회 분야의 '정의'의 문제를 고민했던 독자들은 이제 '그들이...'를 통해 자유주의 경제체계의 모순과 한계점을 탐구하고 있는 셈이다. 때마침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 사회'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노동의 종말', '유리피린 드립' 등의 저서를 낸 제레미 리프킨의 신작 '공감의 시대'(민음사 펄브) 또한 이 반열에 놓을 수 있는 서적이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인간 본연의 감정인 '공감'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러한 공감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고대 신화적 의식의 시대부터 기독교 문명의 발흥,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이래 유토피아의 시대, 20세기 심리학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에서 인간의 공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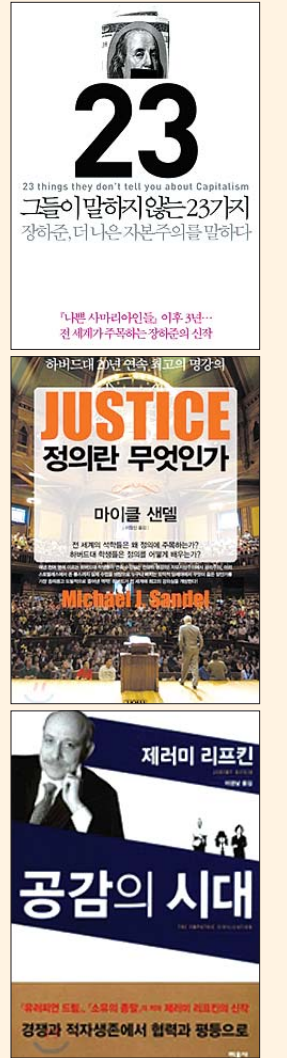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서점가에는 조지 레이코프의 '도덕, 정치를 말하다'(김영사 펄브), 샌델 교수의 '왜 도덕인가?', '이제는 도덕이다' 등 목격할 수 있는 인문 서적들도 잘 나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비판한 인문서가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욕과 모순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었던 현실에서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낯은 가지로만 인식해왔던 윤리나 정의문제에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부자감세만 예를 들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역사와 논리가 깔려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고민과 성찰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동과 테라코타로 빛은 인간의 꿈

조각가 정윤태씨 개인전
30일~12월6일 신세계갤러리



'하늘을 나는 학의 노래'

인간의 달콤한 꿈을 청동 조각에 담다. 조각가 정윤태(조선대 미술대 학장) 씨가 오는 30일~12월6일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꿈을 향해 비상하는 새들'을 주제로 청동과 테라코타로 빛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꿈을 향해 도약하는 인간의 열망을 새와 뚝탄배, 하늘을 나르는 인간의 모습 등을 통해 형상화 했다.

'꽃나팔 소리 퍼지는 하늘'은 새와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부르는 모습을 담았고, 매끈한 표면과 자유로운 표현 등 청동 조각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또 '하늘을 나는 학의 노래'는 춤을 추는 여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잘 표현됐으며, '가족애'는 인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베토벤 교향곡을 만나다 광주시향 26일 문예회관

웅장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4번과 3번을 연주한다. 26일 오후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연주회의 지휘는 독일 출신 아드리안 뮐러가 맡는다.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중인 뮐러는 하노버 국립극장에서 '카르멘'을 지휘했으며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뉘른베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은 바 있다.

'영웅'으로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3번은

당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 헌정됐던 곡으로 유명하다. 자유와 평화 신봉자였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혁신적인 행적을 찬양하며 그에게 이 곡을 헌정했지만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자 곧바로 그의 이름을 지운 표지를 찢어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특히 2악장의 '장송 행진곡'이 유명하다.

교향곡 4번은 1806년에 쓰여진 곡으로 베토벤 특유의 열정적인 정서를 만날 수 있는 곡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내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5돌 행사

지역문화예술네트워킹을 지향하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관·이하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25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상록회관 4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놀이패 신명의 '모사놀이'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공로패·감사패 수여, 재단 5주년 경과보고, 재단의 '이름다운 약속 5가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가수 인디언 수니와 정용주씨가 축

하공연을 하고, 재단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정겨운 합창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지역문화 인사 300여 명이 주축이 돼 발족한 재단은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학술대회를 갖는 등 문화예술네트워킹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2007년 '한국학진흥원 창립총회'를 발족해 한국학진흥원 설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봄비' 이수복 시인 전집 발간

광주문인협회, 미공개 작품도 포함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봄비'의 작가 이수복(1924~1986년·사진) 시인의 미공개 작품이 포함된 전집이 출간됐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전집은 그의 생애와 시세계 조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시인의 유일한 시집인 '봄비'(1968년 현대문학사 펄브)가 출간된 지 40여년 만에 출간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광주문인협회(회장 오덕렬)가 출간한 이수복 전집 '봄비와 낫날'에는 미발표 시 22편과 소설과 산문, 평론 등이 실렸다.

전집은 절판된 시집 '봄비'를 영인본으로 엮어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

광주문인협회는 시인의 막내아들 이석(50)씨로부터 육필원고를 인수해 미발표 시 22편과 수필 1편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문예지에 발표했던 소설 '차륙기' 등 4편의 소설과 평론을 실어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전집에는 145편의 작품이 실렸으며 사



실상 이수복 시인의 모든 작품이 수록돼 자료 정리뿐 아니라 문학사적 의미도 실었다.

시 '봄비'는 1981년 인문계 고교 교과서에 실린 이후,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문학책과 중학교 한문 교과서 등에 실려 왔다.

오덕렬 회장은 "항토미와 언어 미감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보면 이수복 시인은 1930년대 시문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며 "시인의 작품을 문학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924년 함평에서 태어난 이시인은 서울대 예과부 문과를 수료하고 1954년 미당 서정주에 의해 시 '동백꽃'이 '문예'지에 추천돼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6년 승주 중앙고등학교 재직중에 순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공정 직영 | 공사 직거래 | 주택 개·보수 | 인테리어 | APT, 주택 리모델링 |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헬스, 덕트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주소 |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 010-8608-6548

가맹점 모집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종 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全)두부란? 기존 두부와 전혀 다른 품의 고소한 맛과 푸딩처럼 부드러운 이미 선진국에서 장수음식으로 즐겨 먹고 있는 두부입니다.

전두부의 영양 -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주요성분 비교(100g당 함량)		
전 두 부 : 약 3400mg(약 11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미아주로 성인병 예방, 변비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일반두부 : 약 300mg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담석증 예방에 효과
전 두 부 : 약 27.63mg(약 270배)	레시틴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
일반두부 : 약 0.1mg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에서 분리한 특수 지방질 성분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임
전 두 부 : 약 29.95mg(약 30배)		
일반두부 : 미량		
전 두 부 : 약 29.17mg(약 3배)		
일반두부 : 약 9.3mg		

초보자 창업 |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자본 창업 | 가맹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라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 점포 선정부터 완벽 노하우 전수, 메뉴(기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100% 국내산 콩만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썩두부)
※ 최고 상권 다양 확보 보유, 적은 형벌 ~ 큰 형벌 운영 가능

오른 가능 지역 |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광주·전남 체인본부 | NAVER | 대양이텍 | 검색

상 | 062)383-0029, 080-335-0202 (콜이름이)
문 | * 위치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후문 옆 * 매주 토요일 PM 1:00~ 시식 가능합니다.

오픈 1호점 | 광주 금호지구 | 종원팰리스빌 및 뒷밭 상가 옆